

한-케냐 인프라 협력센터

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(11월 3~4주)

□ 정책 및 시장 동향

① 케냐 주요 경제 동향

○ 주요 경제 지표

출처:trading economics

	해당년/월/주/일	전년/월/주/일	참고시점
환율(USD)	130	129	2025.11월
인플레이션(%)	4.6	4.6	2025.10월
CPI(points)	147	147	2025.10월
정부부채비율(% of GDP)	65.5	72	2024.12월

○ 세계은행, 신규 조건 미충족 이유로 케냐에 대한 KES 969억 차관 집행 동결¹⁾

- 세계은행은 재정개혁 및 공공지출 통제 관련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케냐에 대한 KES 969억(7억5,000만 달러) 규모의 개발정책차관을 일시 중단하였음.
- 제시된 신규 조건에 따라, 케냐 정부는 차관 집행 재개에 앞서 불필요한 지출 축소 및 공공조달의 투명성 제고에 있어 구체적 진전을 입증해야함.
- 이번 지연은 케냐 경제에 어려운 시점에 발생하였으며, 예산 집행에 영향을 미치고 외환보유액 압박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음.
- 재무부는 세계은행의 우려를 해소하고 필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.

○ 경영 부진 국영기업(SOEs), 케냐 대외채무의 39% 차지…채무 위기 위험 증대²⁾

- 아프리카개발은행(AfDB) 보고서에 따르면, 6월 기준 총 KES 5조4,800억 규모의 케냐 대외채무 중 약 38.5%(약 KES 2조1,100억)가 경영 성과가

1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world-bank-new-conditions-freeze-sh96-9bn-kenya-loan-5259332>

2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struggling-state-firms-gobble-up-39pc-of-kenya-external-debt-5260378>

- 저조한 국영기업(SOEs) 지원을 위해 차입된 재원과 연계된 것으로 확인됨.
- 다음으로 대외차입 비중이 큰 부문은 운송 부문으로 21.8%(약 KES 1조 1,900억), 이어 에너지 부문이 9.4%(약 KES 5,150억)를 차지함.
 - SOEs 관련 채무 비중 확대는 케냐의 재정위험을 심화시키며, 보고서는 부채가 형식상 “지속가능”한 수준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, SOEs가 국가 지급보증 및 예산 지원에 점진적으로 의존함에 따라 “채무 위기 고위험”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.
 - 주요 SOEs 차입기관으로는 케냐철도공사(Kenya Railways Corporation, 약 KES 7,375억), 케냐항공(Kenya Airways, 약 KES 999억), 케냐전력발전공사(KenGen, 약 KES 786억), 아티수자원개발청(Athi Water Works Development Agency, 약 KES 550억) 등이 있으며, 정부는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기업의 민영화 압박에 직면해 있음.

○ 케냐, 세계은행·IMF와 경제개혁 논의 심화³⁾

- 케냐 국회의장 모세스 웨탕굴라(Moses Wetang'ula)는 세계은행 및 IMF 관계자들과 회동하여 케냐 경제 개혁 협력 강화를 논의하였으며, 공공 재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독 기능 증진 의지를 확인하였음.
- 논의는 감사원장(Auditor-General) · 법무장관(Attorney-General) · 윤리 및 반부패위원회(EACC, Ethics and Anti-Corruption Commission) · 검찰총장(DPP,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) 등 주요 감독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, 거버넌스 및 반부패 정책 개선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춤.
- 재무부 장관 존 음바디(John Mbadi)는 별도로 세계은행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상향식 경제변혁 의제(BETA) 하에서 케냐의 재정개혁 의지를 확인하였음.
- 세계은행은 도시 교통체계, 농촌 도로, 빅토리아 호수 개발을 포함한 세 가지 주요 사업에 KES 11억6,000만을 승인했으며, 케냐는 추가적인 우대 자금 조달을 모색하고 있음.

3) <https://businesstoday.co.ke/wetangula-world-bank-and-imf-deepen-talks/>

- 동아프리카, 인프라 자금 격차 해소 위해 연금 기반 페가펀드 검토⁴⁾
 - 케냐, 우간다, 탄자니아, 르완다, 부룬디, 남수단, 콩고민주공화국(DRC) 등 동아프리카 국가들은 전통적 대외자금 조달이 감소하는 가운데, 약 4천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연금기금 자산을 공동 출자하여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.
 - 이는 글로벌 개발금융이 위축되고 아프리카 연간 인프라 자금 격차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(예: 정상회의에서 언급된 수치는 1조3,000억 달러)을 반영함.
 - 연금 기반 인프라펀드를 운영하기 위해, 해당 국가들은 기여자의 은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체계, 투자 수단, 위험 완화 조치를 마련해야 함.
 - 케냐는 이미 케냐 연금기금 투자컨소시엄(KEPFIC)을 통해 인프라 및 대체자산으로의 투자 다각화를 추진하는 등, 지역적 차원의 추진 동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줌.
- 중국과의 무관세 무역 협정 지연, 케냐 수출업계 우려 증대⁵⁾
 - 케냐 수출업체들은 기대를 모았던 중국과의 무관세 협정이 지연되면서 우려가 증대되고 있으며, 중국 측은 공개적으로 협정 추진 의사를 밝힌 상태임.
 - 이 협정은 미국 AGOA 무역 협정 변경으로 인한 무관세 접근권 상실을 일부 보완할 수 있기에 케냐 수출업계에 매우 중요함.
 - 한편, 케냐의 중국과의 무역적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, 2025년 상반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KES 3,047억으로 급증한 반면, 중국으로의 수출은 감소해 협정 체결의 시급성이 강조됨.
 - 케냐 주재 중국 대사를 포함한 중국 관계자들은 무관세 협정 추진을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, 나이로비 현지의 관료적 절차 지연이 주요 병목으로 남아 있음.
- 케냐, 미국 개발자금 감소에 따라 중국 자금 활용 전환⁶⁾

4) <https://www.theeast-african.co.ke/tea/business-tech/region-mulls-mega-funds-for-infrastructure-5258204>

5) <https://www.standardmedia.co.ke/business/financial-standard/article/2001534436/why-kenya-china-zero-tariff-deal-has-stalled>

6) <https://nation.africa/kenya/business/kenya-turns-to-china-to-sustain-development-projects-as-us-financing-dries-up-5269432>

- 전통적 서방 파트너,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개발자금 지원이 크게 줄어든 이후 개발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점점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.
- 이러한 전략적 전환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중단될 가능성이 있었던 주요 인프라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.
- 이번 변화는 글로벌 금융 동맹의 변화와 케냐가 이용 가능한 자원을 통해 필요한 개발 자금을 확보하려는 실용적 접근 방식을 반영함.
- 해당 조치는 중-케냐 경제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한편, 부채 지속 가능성과 지정학적 정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.

○ 외부 압력 증가 속 케냐 실링, KES 134까지 약세 전망⁷⁾

- 옥스퍼드 이코노믹스(Oxford Economics), 스탠다드차터드(Standard Chartered), 씨티그룹(Citigroup) 등 글로벌 기관의 분석가들은 수입 비용 상승과 높은 외채 상환 부담 등 위험 요인으로 인해 케냐 실링이 2026년 말까지 미 달러화 대비 약 KES 134 수준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.
- 실링은 지난 18개월 동안 달러당 KES 129~130 사이의 좁은 범위에서 거래되며 이례적인 안정세를 보였으며, 국제통화기금(IMF)은 인위적인 안정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.
- 분석가들은 대규모 재정 적자, 경상수지 악화, 외환보유액에 대한 잠재적 압력 등이 실링의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.
- 실링 약세는 케냐 기업의 수입 비용을 증가시키고, 정부 및 민간 부문의 외화 부채 상환 부담을 높이며,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음.

② PPP 관련 동향

○ 루토 대통령, JKIA 재건·현대화 위한 KES 2,000억 PPP 계획 옹호⁸⁾

- 윌리엄 루토 대통령은 조모 케냐타 국제공항(JKIA) 현대화 계획을 옹호하며, 공항 매각설을 일축하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적 수준 시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.
- 그는 정부가 공공·민간협력(PPP) 모델을 통해 약 KES 2,000억을 조달할

7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markets/currencies/global-analysts-see-shilling-weakening-to-sh134-against-dollar-5270452>

8) <https://www.the-star.co.ke/news/2025-11-06-ruto-we-need-to-build-a-new-airport-tuwache-upuzi>

예정이며, 이는 르완다 국제공항 개발에 적용된 카타르 모델을 따른 것이라고 발표하였음.

- 루토 대통령은 카타르 국왕과의 회담에서 케냐의 인프라, 농업, 금융 부문에 대한 카타르의 투자 확대 및 케냐항공(Kenya Airways)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.
- 대통령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, 과거 부패 우려로 인해 인도의 아다니 그룹(Adani Group) 및 케트라코(KETRACO) 관련 PPP 계약을 취소한 사례를 상기시켰음.

○ 네덜란드 기업, 사바키 수원 수송 PPP 사업 요금 인하 위해 KES 81.4억 보조금 수여⁹⁾

- 네덜란드 투자기업 Invest International은 몸바사(Mombasa) 및 킬리피(Kilifi) 카운티의 사바키 수원 수송 사업 지원을 위해 사업비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KES 81.4억(약 6,300만 달러) 규모 보조금을 약속했으며, 이는 소비자 수도 요금 인하를 목표로 함.
- 총사업비는 KES 329.6억(약 2억5,500만 달러)으로 추정되며, 바리초(Baricho) 지하수층으로부터 하루 80,000m³의 물을 두 해안 카운티의 주민 및 기업에 공급할 예정임.
- 신규 공급의 예상 물 요금은 m³당 KES 160~170이지만, 몸바사 키오스크의 현재 요금은 약 KES 100으로,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요금 부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.
- 본 사업은 Utility Partners One LLP가 주도하는 민관협력(PPP) 구조로 진행되며, 7MW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포함해 에너지 공급을 지원함. 케냐 PPP국은 2025년 2월 계약 협상을 승인했으며, 2025/26 회계연도 내 착공이 예상됨.

○ UAE 기업, 케냐 항만 및 청정에너지 부문 전략적 PPP 투자 검토¹⁰⁾

- Gulftainer, BEEAH Group, Etihad Credit Insurance(ECI) 등 아랍에미리트

9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corporate/companies/dutch-firm-grants-to-cut-water-prices-in-coast-ppp-project-5259202>

10) <https://www.capitalfm.co.ke/business/2025/11/three-uae-firms-eye-investment-in-kenyan-port-and-shipping-projects/>

(UAE) 주요 3개 기업이 케냐 항만, 해운, 청정에너지 부문에 대한 민관협력(PPP) 투자를 검토하고 있음.

- Gulftainer는 25년 PPP 계약을 통해 몸바사 항만 11~14번 부두의 현대화 및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, BEEAH는 케냐 카운티와 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성 관련 협력을 모색하고 있음.
- ECI는 청정에너지 금융 지원 및 위험보험 제공을 통해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임.
- UAE-케냐 무역·투자 포럼은 경제적 유대 강화의 이정표로 평가되며, 2024년 기준 케냐 내 UAE 외국인직접투자(FDI)는 1억2,100만 달러에 달하였음.

○ Kenya Power, 의회 PPA 동결 해제 후 PPP를 통한 1,112MW 신규 발전 추진¹¹⁾

- Kenya Power는 의회가 7년간 지속된 전력구매계약(PPA) 동결을 해제함에 따라, 54개 발전사업자와 신규 PPA을 협상하여 국가 전력망에 1,112MW를 추가할 계획임.
- 예상되는 프로젝트는 주로 소수력 발전소를 포함하며, 2개의 100MW 풍력 발전소와 4개의 50MW 풍력 발전소 등 여러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도 포함됨.
- 100MW 풍력 발전소 중 하나는 메루(Meru) 카운티에 제안되었으며 Hewani Energy(Seriti Green + Eurus)가 참여하고, 다른 하나는 기존 PPA를 Kenya Power와 체결한 Kipeto Energy가 추진함.
- PPA 협상은 시급한 상황으로, 케냐의 발전 용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, 특히 피크 시간대에 에티오피아 및 우간다로부터 전력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.

○ 케냐, 북부 회랑 혼잡 완화를 위해 PPP 기반 Rironi-Naivasha-Mau Summit 도로 확장 착수¹²⁾

11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corporate/industry/kenya-power-in-talks-for-1-112mw-fresh-deals-5266858>

12) <https://www.the-star.co.ke/news/2025-11-18-dualing-of-rironi-mau-summit-road-to-start-next-week>

- 월리엄 루토 대통령은 170km 구간 Rironi-Naivasha - Mau Summit 도로 확장이 2025년 11월 28일 착공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, 이는 북부 회랑 혼잡 완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함.
- 정부는 또한 58km 구간 Rironi-Maai Mahiu-Naivasha 도로 확장 프로젝트의 착공도 진행할 예정이며, 두 프로젝트 모두 중국교통건설공사(CCCC)의 자회사 CRBC를 통해 건설됨.
- 본 프로젝트는 CRBC-NSSF 컨소시엄과의 민관협력(PPP) 방식으로 진행되며, 30년간의 통행료 운영권, 통행료 수익에 대한 30년 세금 면제, 75% 부채·25% 자본 기반의 재원 구조로 구성됨.
- 통행료는 연 1%씩 인상되지만 협상이 가능하며, 컨소시엄이 교통량 및 수익 리스크를 부담하여 납세자가 잠재적 손실로부터 보호받도록 설계됨.

③ 인프라 정책 및 동향

- 루토 대통령, 삼부루 카운티 혁신 위한 KES 74억 규모 저비용 주택 사업 착공¹³⁾
 - 월리엄 루토 대통령은 삼부루 동부(Samburu East) Archer's Post 저비용 주택사업을 공식 착공하며, 케냐 국가 저비용 주택 정책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음.
 - KES 74억 규모 투자로 저비용 주택, 현대식 시장, 학생 기숙사 등이 제공되며, 카운티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함.
 - 루토 대통령은 본 사업이 일자리 창출, 청년 기술 역량 강화, 포용적 개발 측면뿐만 아니라 저·중소득 가정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주택 제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.
 - 지역 주민과 지도자들은 해당 프로젝트가 삼부루 경제를 변화시키고, 지역 사회 복지를 강화하며, 추가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기대감을 표명하였음.
- 정부, 이전 취소 결정 후 Muthaiga - Kiambu - Ndumberi(B32) 도로 확장사업 재개¹⁴⁾
 - 정부는 올해 초 취소했던 나이로비와 키암부를 연결하는 23.5km 구간의

13) <https://www.the-star.co.ke/news/2025-11-10-photos-ruto-launches-housing-project-in-samburu>

14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state-takes-u-turn-to-revive-on-kiambu-road-dualing-5261650>

Muthaiga-Kiambu-Ndumberi(B32) 도로 확장 계획을 재개하였음.

- 이번 개선사업은 기존 2차선 도로를 왕복 2차선 도로로 전환하며, 우회도로, 서비스도로, 진입로, 비자동차 통행차선 등을 포함해 혼잡 완화와 및 이동성 개선을 목표로 함.
- 사업 자금은 중국수출입은행(China Exim Bank)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, 이번 재개는 2025년 7월 케냐국가고속도로청(KeNHA)과 관련하여 중국 시공사로 제한된 입찰이 취소된 이후 이루어진 것임.
- 내각이 승인하였으나, 원래 입찰 조건(중국 기업 제한 등)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불분명하며, 투명성과 현지 건설업체 참여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.

○ 케냐, 나이바샤 - 말라바 SGR 연장사업 위해 KES 3,900억 규모 채권 발행 계획¹⁵⁾

- 케냐는 중국 수출입은행(China Exim Bank)이 부채 문제로 자금 지원을 철회함에 따라, 나이바샤(Naivasha)-말라바(Malaba) 구간 표준궤도철도 (SGR) 연장사업을 위해 15년 만기 채권으로 KES 3,900억을 조달할 계획임.
- 채권 상환은 연간 약 KES 400억을 창출하는 수입품 2% 부과 철도 개발세(Railway Development Levy) 수익으로 이루어질 예정.
- 이번 조치는 주요 인프라 사업에서 외국 차입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자금 조달과 민관협력(PPP) 중심으로의 전략적 전환을 의미함.
- 총 468km에 달하는 연장 구간은 케냐와 우간다, 남수단을 연결하며, 지역 무역 활성화와 북부회랑 도로 혼잡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○ 우간다, 국내 정유·지역 에너지 리더십 목표로 USD 40억 규모 정유 프로젝트 추진¹⁶⁾

- 우간다는 하루 약 6만 배럴을 처리할 수 있는 40억 달러 규모 정유 시설 개발을 추진 중이며, 최종 투자 결정(FID)이 곧 이루어질 예정임.
- 정부는 아랍에미리트(UAE) 기반 Alpha MBM Investments와 MOU를

15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kenya-eyes-sh390bn-bond-to-fund-sgr-extension-to-malaba-5257682>

16) <https://www.theeastfrican.co.ke/tea/business-tech/uganda-is-on-track-for-4bn-refinery-project-5257576>

체결하였으며, 주요 개발자 지분 모델 하에 Alpha MBM이 60% 지분을, 우간다가 40% 지분을 보유함.

- 건설 및 가동 시점은 2029년 말에서 2030년 초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, 이전 시공사 철수 및 자금 조달 지연으로 일정이 일부 변경되었음.
- 본 정유시설은 우간다가 원유 생산 기반 국내 정제 중심으로 전환하고, 수입 의존도를 줄이며, 일자리 창출과 지역 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는 광범위한 계획의 일부임.

○ 케냐, 120MW Suswa 태양광 발전소 착공… 100%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¹⁷⁾

- 루토 대통령은 USD 2억 투자 규모의 120MW 수스와(Suswa) 태양광단지 착공식에 참석했으며, 이번 프로젝트는 케냐의 심화되는 전력 부족 문제 해소를 목표로 함.
- 본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100% 재생에너지 달성을 목표로 하는 케냐의 전략과 부합하며, 국내 소비, 산업, 데이터 센터 등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함.
- 루토 대통령은 아프리카가 태양광, 풍력, 지열, 수력 등 방대한 재생 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화와 탄소배출권 창출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음.
- 전문가들은 케냐의 지속적인 청정에너지 투자가 지역 내 녹색 전환 선도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고 평가했으나, 이 전환에는 강력한 재정 지원, 정책적 의지, 화석연료 확대 방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음.

○ KES 500억 규모 Mzima Two 사업, 지연 지속¹⁸⁾

- KES 500억 규모의 Mzima Two 수자원 프로젝트는 장기 타당성 조사와 미해결 환경영향평가(EIA) 문제로 인해 상당한 지연을 겪고 있음.
- 중앙정부와 카운티 정부 간 재원 불확실성과 관료적 절차로 조달 및 사업 시행이 지연되고 있음.
- 토지 보상과 자원 배분과 관련한 지역사회 우려가 추가적인 장애물을

17) https://businessstoday.co.ke/120-megawatt-suswa-solar-park-to-relieve-power-stress-for-kenya/#google_vignette

18) <https://nation.africa/kenya/counties/taita-taveta/why-sh50bn-mzima-two-project-faces-more-delays-5264008>

- 작용하고 있으며, 공사 착공 전 해결이 필요함.
- Taita Taveta 및 인근 지역의 물 부족 문제 해결에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, 프로젝트 일정은 여전히 불확실함.
- 정부, 신규 도로 건설 목표 269% 초과 달성… 건설업 회복 촉진¹⁹⁾
- 정부는 6월까지 연간 신규 도로 건설 목표 206.35km 대비 761.25km를 건설하여 목표를 268.91% 초과 달성하였음.
 - 이러한 급증은 임시지급증명서(Interim Payment Certificates, IPC)를 통한 기존 계약자 부채 상황으로 인해 이전에 중단된 다수의 도로 프로젝트가 재개된 데 기인함.
 - 그 결과 건설업이 회복세를 보이며, 시공업체들이 업무에 복귀하고 GDP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.
 - 그러나 미지급 청구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, 시공사 부채 잔액은 KES 1,667.6억에서 KES 1,283.6억으로 감소했으나, 도로 부문에서 지속적인 재정적 압박이 존재함을 나타냄.
- #### ④ 정치 동향
- 내각, 신규 인프라 요금 체계·토지 정착 개혁·외교 확장 승인²⁰⁾
- 케냐 내각은 인프라 사업 비용 과다 책정 방지, 투명성 제고, 공공투자에 대한 가치 확보를 위해 설계된 인프라 프로젝트 요금 체계의 종합 프레임워크를 승인하였음.
 - 본 체계에는 부문별 요금 모델 개발, 비용 산정 기준 마련, 비용 데이터를 체계화하기 위한 국가 인프라 요금 데이터베이스(National Infrastructure Pricing Database, NIPD) 구축 계획이 포함됨.
 - 내각은 또한 26개 카운티에 걸친 총 KES 123억의 미상환 토지정착 대출에 대한 이자 및 벌금 면제를 승인하여, 저소득층 정착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토지 소유권 증서 발급을 촉진하였음.
 - 아울러 이번 개혁은 인프라, 토지, 외교 부문이 포함되어 있으며,

19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new-roads-exceed-target-by-269pc-5269338>

20) <https://www.standardmedia.co.ke/national/article/2001533997/cabinet-approves-major-reforms-in-infrastructure-land-and-diplomacy>

23.5km 구간의 Muthaiga-Kiambu-Ndumberi 도로 확장 승인, 나이로비 국립공원 - Athi-Kapiti 야생동물 회랑 조성, 바티칸에 케냐 대사관 설립 등이 포함됨.

- 루토 대통령, 케냐 인프라 개발 위해 KES 1,290억 민간투자 확보²¹⁾
 - 루토 대통령은 케냐 인프라 개발을 위해 United Bank for Africa와 Heirs Holdings 그룹 회장 토니 엘루메루(Tony Elumelu)로부터 KES 1,290억(약 10억 달러) 규모 민간 부문 투자 약속을 확보하였음.
 - 해당 자금은 전력 생산, 식량 안보, 도로 및 철도망 확장 등 핵심 부문을 대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할 예정임.
 - 이번 투자는 민관협력(PPP)의 중요한 사례로, 아프리카 민간 부문의 대륙 발전 주도 역할을 강조함.
 - 이 협력은 전략적 투자와 비전있는 리더십을 결합하여 케냐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아프리카 잠재력 발현를 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림을 시사함.
- 미국 부통령 JD 밴스의 케냐 방문 취소 배경²²⁾
 - 미국 부통령 JD 밴스의 케냐 방문 계획은, 미국 정부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요하네스버그 G20 정상회의 참석을 취소하면서 함께 취소되었음.
 - 케냐 정부는 국무총리 겸 외교부 장관 무살리아 무다바디(Musalia Mudavadi)의 성명을 통해 방문 취소를 확인하고, 갑작스런 일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케냐-미국 양자관계의 강점과 지속성을 강조하였음.
 - 이번 방문은 미국-케냐 전략적 무역·투자 파트너십을 공고히하고, 무역, 투자, 안보, 외교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며, 케냐가 2025년 말까지 워싱턴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려는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.
 - 케냐는 고위급 방문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투자, 교육, 보건,

21) <https://www.the-star.co.ke/news/2025-11-12-photos-ruto-secures-sh129bn-private-sector-boost-for-infrastructure-transformation>

22) <https://nation.africa/kenya/news/-why-us-vice-president-jd-vance-will-not-be-coming-to-kenya-5260178>

지역 안보 등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함.

○ 의회, 전기요금 인상 지시²³⁾

- 국회의원들은 Kenya Power의 재정 불안정 문제 해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, 에너지·석유 규제청(Energy and Petroleum Regulatory Authority, EPRA)에 전기요금 인상을 지시했음.
- 이번 지시는 공공요금 정부 보조금 의존도를 줄이고, 국가 전력공급업체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함.
- 의원들은 현 요금 체계가 지속 불가능하며, Kenya Power가 과거 국가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부채를 쌓아왔음을 지적했음.
- 제안된 요금 인상은 가정용 및 상업용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, 생활비와 기업 운영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음.

○ 의회, Wandayi 승인 후 케냐 석유 산업 향방 결정 예정²⁴⁾

- 케냐 의회는 오피요 완다이(CS Opiyo Wandayi) 장관이 필드 개발 계획(Field Development Plan, FDP)을 승인하고 의회 비준을 위해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, 국가 석유 산업에 관련된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음.
- 원유 저장탱크 및 몸바사 항구로 수송하여 해외 정제에 활용할 파이프라인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약 34억 달러(KES 4,395억)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.
- Gulf Energy는 이번 프로젝트에 필요한 KES 4,950억 규모 인프라 재원 조달 계획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으며, 자체 재원 또는 전략적 투자자와의 계약을 통한 조달 여부가 불확실함.
- 의회의 표결은 케냐 석유 산업의 향방과 국가 경제 발전에 대한 잠재적 기여를 결정할 것임.

23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corporate/industry/mps-order-regulator-to-increase-power-prices-5269416>

24) <https://nation.africa/kenya/business/mps-to-decide-kenya-s-oil-fate-after-wandayi-s-nod-5264072>

□ 일반 프로젝트 동향 및 센터 운영 현황 보고

① 일반 프로젝트 동향

① Kiambu-Mangu-Thika Road Project²⁵⁾

< 사업 개요 >

- (발주처) Kenya National Highways Authority (KeNHA).
- (도급사) 최신 업데이트 기준, 아직 공개적으로 계약 체결되지 않음
- (사업비) Kiambu Road~Thika Road 구간 업그레이드 기준 초기 추정 약 KES 107.8억
- (펀딩) 용량 확충을 위한 자금 조달 약정은 중국 수출입은행(China EXIM Bank)에서 언급되었으나, 상업 계약 세부사항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음
- (사업내용)
 - 본 업그레이드는 Pangani/Muthaiga~Kiambu Town~Ndumberi의 약 23.5 km 구간을 포함함.
 - 사업 범위에는 양측 2차선 서비스도로, 보행자 시설, 다수의 보행육교 및 교차로 (예: Ridgeways, Kirigit Junction, Kamiti Road, Banana Road)가 포함된 왕복 2차선 도로 전환이 포함됨.
 - 주요 회랑과 연결되는 지선·분기도로(예: Ridgeways Road~Thika Road, UN Avenue via Runda)도 개선사업에 포함되어 연결성 향상 및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함.
- (추진현황)
 - 2025년 11월: 내각은 Muthaiga-Kiambu-Ndumberi 23.5km 도로 확장 및 포장을 승인하며, 공식적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승인 신호를 보냄.
 - 2025년 11월: 언론 따르면 입찰자 사전 자격 기준을 공개했으며, 연간 최소 매출액 KES 322억(약 2억5,000만 달러) 요구 조건이 포함되는 등 엄격한 시공사 심사가 진행됨.
 - 본 사업은 이전에 조달 및 자금 문제로 2025년 7월에 일시 취소되었으나, 현재 국가 차원에서 재개되었음.

○ (주요상황)

- 재개된 사업은 나이로비 수도권 교통 회랑 혼잡 완화 및 통근자 이동성 개선을 위한 정부의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
- 이번 재개는 입찰자 제한과 재원 불확실성 등 조달 관련 문제로 이전 사업 추진이 지연된 데 따른 것
- 자금 조달 구조, 시공사 선정, 구제적 상업 계약 조건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, 케냐국가고속도로청(KeNHA)이 조달 절차 최종화 단계 진행 중

25) <https://kiambuobserver.co.ke/inside-the-approved-sh38-7bn-kiambu-dual-carriageway-project/>

② 23.5-kilometre Muthaiga-Kiambu-Ndumberi (B32) road²⁶⁾

< 사업 개요 >

- (발주처) Kenya National Highways Authority (KeNHA).
- (도급사) 아직 최종 계약 체결되지 않았으며, 2025년 7월 국제 입찰이 취소됨
- (사업비) 회랑 용량 확충을 위한 자금 조달은 중국수출입은행(China Exim Bank)을 통해 모색되었으나, 최종 확정 금액은 공개되지 않음
- (편叮) 본 사업은 시공사 자격 요건과 연계된 외부 차입(중국수출입은행, China Exim Bank)을 통해 자금 조달될 예정이나, 입찰 취소 및 입찰자 제한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.
- (사업내용)
 - 회랑은 키암부(Kiambu) 카운티 내 Muthaiga~Kiambu Town~Ndumberi 구간 약 23.5km를 포함함.
 - 업그레이브 범위
 - 양측 2차선 서비스도로가 포함된 4차선 복선 도로
 - 다수의 신설 교량(예: Muthaiga Golf Club Spur, Kirigitii 교차로) 및 교차로(Kamiti Road/Kiambu Road), Banana Road/Kiambu Road, Northern Bypass/Kiambu Road)
 - 인근 정착지 및 기관과 연결되는 지선·우회도로(예: Ridgeways Road-Thika Road, Mua Park Road/Serengeti Avenue)
- (추진현황)
 - 2025년 7월 15일: 케냐국가고속도로청(KeNHA)은 "Pangani–Muthaiga–Kiambu–Ndumberi(B32) 도로 및 인접 도로망 용량 확충"을 위한 국제 공개 입찰을 개시하였으며, 입찰 마감일은 2025년 8월 22일로 설정됨.
 - 2025년 7~8월: KeNHA는 입찰을 취소하였으며, 사유로는 조달 문제와 중국 기업에 제한된 입찰자 자격 요건을 언급함. 이로 인해 투명성 문제에 대한 공개적 비판이 제기되었음.
 - 2025년 11월 11일: 내각은 도로 확장 및 포장을 승인하며, 공식적으로 사업 추진을 승인하고, 우회도로, 서비스 도로, 비자동차 통행 시설을 포함한 사업 범위를 재확인하였음.
 - 2025년 11월 11일: 일부 운전자 및 사업자 단체는 이번 개선사업에 대해 도로변 상점 이전, 공사 기간 중 접근성 저하, 지역 경제적 혜택 보장과 관련한 우려를 표명하였음.

○ (주요상황)

- 본 사업은 나이로비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및 나이로비-키암부 카운티 간 통근 이동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광범위한 정책의 일환
- 이전 입찰 취소와 현지화, 투명성, 자금 조달 조건 해결 필요로 인해 조달 및 시공사 선정 절차는 여전히 유동적
- 완공 시, 개선된 회랑은 이동 시간 단축, 도로 안전 개선 Muthaiga-Kiambu-Ndumberi 구간 인근 경제 활동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.

26) <https://www.constructionkenya.com/11827/kiambu-dual-carriageway/>

③ Mombasa Gateway Bridge²⁷⁾

< 사업 개요 >

- (발주처) 인프라 국(State Department for Infrastructure) / 케냐국가도로청(Kenya National Highways Authority, KeNHA), 본 사업은 국가 인프라 기관(national infrastructure agencies)에 의해 관리된다.
- (도급사) 아직 선정되지 않음 / 현재 사업은 조달·착공 전 단계
- (사업비) 다양한 추정치 존재: 초기 타당성 조사 기준 약 USD 700–780 million(≈ KES 80억–100억)/ JICA 차관 기록에는 한 단계 구간에 KES 470억 규모 재원 조달 포함/ 정부 성명에서는 더 큰 규모의 자금 패키지 논의 언급 (수치는 출처별 상이)
- (펀딩) 양자 및 정부 재원 활용(일본/JICA 차관 문서화, 추가 정부 배정 및 대규모 자금 패키지는 대통령실 발표 및 예산 기록에서 논의됨
관련 연안 인프라 재원 조달 논의에서는 국가사회보장기금(Local/National Social Security Fund, NSSF) 및 기타 기관 투자자 언급됨
그러나 해당 교량에 대한 공식 주주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음
- (사업내용)
 - Mombasa Gateway(Gate/Likoni) Bridge는 장대 현수교로, Mombasa Island~남해안 (Likoni/Mtongwe 지역)을 연결할 예정이며, 기존 페리 서비스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고, Likoni 해협(Likoni Channel) 교통 흐름을 개선하도록 설계되었음.
 - 설계 특징은 4차선 도로, 선박 통과 고려한 중앙 케이블-스테이 교량, 접속 도로 및 교차로를 포함하며, Dongo Kundu 우회도로 및 항만 접근로와 통합하도록 설계됨.
 - 타당성·설계 기록에 따른 프로젝트 이점
: 페리 혼잡 완화/ Mombasa~남부 연안 간 이동시간 단축/ 항만 화물 접근성 개선/ 지역 연결성 향상/ Dongo Kundu 경제·산업 생태계 활성화
 - 주요 준비 요소
: 환경·사회 영향 평가 및 이주 계획/ 상세 엔지니어링 설계/ 토지 취득 및 보상/ 건설 시공사 선정/ 재원 조달 동원 (JICA가 타당성 조사 및 설계 작업과 문서화를 지원함.)
- (추진현황)
 - 2016~2023년: 타당성 조사 및 상세 설계 단계 (JICA 지원 연구 및 공식 설계 작업).
 - 2019년: 차관 계약 기록 및 사전 재원 단계 제출 (감사 보고서 및 의회 보고서에 프로젝트와 관련 차관 계약 명시).
 - 2023~2024년: 설계 확정 및 개발 파트너와의 정부 재협력, 토지 취득 및 준비 활동 관련 공고.
 - 2024~2025년: 정부가 공식 토지 취득 절차 개시, 입찰/컨설팅 문서 공개, (입찰 문서에 입찰 기간 2025년 11월~2026년 11월, 예정 시공 시작 2027년 1월 명시).

27) <https://tenders.go.ke/storage/Documents/1727078676452-tender-document.pdf>

-현재(2025년 말): 프로젝트는 착공 전 단계 (조달 및 토지/보상 해결 중). 현지 보도에 따르면 미해결 토지 분쟁 및 지역 사회 우려가 해결되지 않으면 프로그램 지연 위험이 있음.

○ (주요상황)

- JICA가 타당성 조사 및 환경/사회 관련 작업 지원. 공식 조달/입찰 문서(국가 및 입찰 포털에 게시)에는 공식 일정이 명시되어 있으며, 입찰은 2025년 11월부터 예정. 초기 시공 시작은 2027년, 장기간 시공 예상(2033년까지), 준공(commissioning)은 2034년 경으로 기재
- 일본과의 양자 차관(공개 채무 기록에 명시)이 핵심 재원 조달 요소이며, 공공 예산/채무 포털에 프로젝트 및 관련 채권자 기록이 등재됨.
- 정부 성명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, 본 교량은 Dongo Kundu/Mombasa Gateway 개발을 위한 대규모 자금 패키지와 연계되기도 하였으나, 총사업비는 출처별 상이(약 USD 450m~USD 780m 범위로 추정, 사업 범위 및 부대공사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짐.)
- 주요 리스크 요인: 미해결 토지 소유권 분쟁과 영향받는 지역 사회의 공정 보상 요구. 현지 언론은 특정 분쟁 토지를 지적하며, 해결되지 않으면 진행 지연 가능성이 있음.

④ Garissa-Isiolo Road & Associated Spur/Roads to All-Weather (Gravel) Standards²⁸⁾

< 사업 개요 >

- (발주처) 케냐국가도로청(Kenya National Highways Authority, KeNHA) / 인프라 국(State Department for Infrastructure, Ministry of Roads & Transport)
- (도급사) 중국도로교량공사(China Road and Bridge Corporation, CRBC) – Garissa-Isiolo 구간에 대한 계약은 2022년 3월에 체결됨
- (사업비) 다양한 예산 참고자료 존재
 - 국가 예산 기록에 사업 항목 배정:
2022년: KES 80,000,000/ 2023년: KES 68,000,000/ 2024년: KES 65,000,000/ 2025년: KES 212,568,118 ("Construction of Garissa-Isiolo (A10) Road to Gravel Standards" 항목)
· 보다 광범위한 Lamu-Garissa-Isiolo 구간 관련 재원은 공개 발표에서 수십억 KES 규모로 보고됨
· 정부 예산 페이지에는 단일 확정 계약 가격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, 시공사 공개 발표(CRBC)에는 프로젝트와 18개월 시공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나, 해당 페이지에는 총 계약 금액이 게시되지 않음.
- (편당) 정부 예산 배정(State Department for Infrastructure/KeNHA), 2022~2025년 기간에 걸친 항목별 개발 배정 포함
해당 도로는 LAPSET 구간 우선 사업의 일부로, 다른 구간에서 추가 정부 및 파트너 자금 조달을 유치함 (공개 발표에서는 더 큰 구간 자금 패키지 언급). 검토한 공개 자료에서는 이 정확한 구간에 대한 단일 기부자/차관 패키지는 확인되지 않음.
- (사업내용)
 - Garissa-Isiolo 업그레이드는 A10/Lamu-Garissa-Isiolo 구간의 일부로 제시되며, 북동부 및 Isiolo 지역 연결성 개선과 Lamu 항구를 내륙 시장 및 인접국과 연계를 목표로 함.
 - 입찰 및 KeNHA 공지에 기술된 작업 내용은 "전천후 자갈 표준" 단계적 건설과 관련 분기 도로(spur roads) 포함 (농촌 연결로 및 분기 접근로 개선). 조달 공지는 2021년 말 게시되었으며, 전문 설계 및 ESIA 문서가 작성 발주됨.
 - Garissa-Isiolo 구간에 대한 환경 및 사회 영향 평가(ESIA) 보고서가 존재하며 (KeNHA 의뢰로 작성), 기준 조사, 이해관계자 참여, 완화 조치 포함. 공식적인 프로젝트 준비 절차 완료.
- (추진현황)
 - 2021년 11월: KeNHA가 Garissa-Isiolo (A10) 및 관련 분기 도로의 전천후 자갈 표준 단계적 건설 입찰 공고를 게시함.
 - 2022년 3월: China Road & Bridge Corporation(CRBC)가 Garissa-Isiolo 도로(약 160 km) 건설 계약 체결을 공개 발표, 공사 기간 18개월 명시(CRBC 성명).

28) <https://map.au-pida.org/projects/show/21510001>

- 2022~2025년(예산): 프로젝트 항목 국가 예산 및 공개 예산 추적에 포함
2022년: KES 80,000,000/ 2023년: KES 68,000,000/ 2024년: KES 65,000,000/ 2025년: KES 212,568,118 (Garissa-Isiolo (A10) 도로 자갈 표준 건설). 해당 배정액은 지속적 재원 확보 및 회계연도(FY)별 단계적 시행 반영
- 2024~2025년 2월: 정부 발표 및 도로부(Ministry of Roads) 자료에 따르면, 북부/북동부 지역 광범위한 도로 개선 프로그램을 설명하며, Lamu-Garissa-Isiolo 구간을 완공 및 LAPSSET 연계를 위한 우선 과제로 지정
- 언론 보도(2024년 5월)에서는 인접 구간 목표 완공일과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
- 2025년 도로부 공식 페이지에는 해당 구간을 포함한 혁신적 도로사업을 계속 게재함.

○ (주요상황)

- 계약 수주 및 시공사: CRBC가 Garissa - Isiolo 계약 체결을 공개 발표 (2022년 3월), 프로젝트가 입찰 단계에서 계약 수주 단계로 진행됨을 나타냄.
- 해당 도로는 LAPSSET/구간 연결성 자료와 정부 발표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며, 북부 구간 개선과 관련된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, 단순 지역 연결성 이상의 의미를 지님.
- 예산 지속 배정: 국가 예산 기록에는 2022~2025 회계연도 동안 “Garissa-Isiolo (A10) 도로 자갈 표준 건설” 항목이 반복적으로 배정됨. 이는 단일 완료 프로젝트가 아닌 단계적 재원 배정 또는 지속적 사업 수행을 나타냄
- Garissa-Isiolo 구간에 대한 ESIA 보고서가 존재하며, 프로젝트 준비 과정에서 환경 및 사회 관련 공식 준수 절차가 수행되었음을 확인.
- KeNHA 및 조달 포털은 2021년 단계적 건설 입찰을 게시했으며, 이후 조달 문서는 KeNHA/Kenya Roads 조달 피드에 나타나 단계적 계약과 일치함.

② 협력센터 운영 보고

- 해당사항 없음